

손열음·임동혁·노부스 콰르텟 ... 잇따라 광주·전남 공연

클래식 선율로 한 해 마무리 하세요



'노부스 콰르텟' ©Jino Park



손열음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 임동혁과 손열음, 최근 가장 핫한 클래식 앙상블 노부스 콰르텟 등 클래식 스타들이 잇따라 광주와 여수를 찾는다.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김재일은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레퍼토리는 쓸쓸한 요즈음과 잘 어울리는 슈베르트의 걸작 '겨울 나그네'다. 독일의 시인 빌헬름 뮐러의 연작시에 곡을 붙인 '겨울 나그네'는 '보리수' 등 총 24개의 노래로 이루어진 연가곡이다.

2004년 브라운슈바이크 주립오페라극장에서 도니제티 오페라 '루치아'의 바리톤 주역 엔리코 역으로 유럽무대에 데뷔한 김 씨는 바그너 연출의 대가 필립 아틀로가 연출한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알베리히 역 등을 맡았다.

반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김준희는 최연소 톨스토이 콩쿠르 최우수상 수상에 비롯해 예들린겐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이탈리아 마사르사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한국 현악사중주단의 대표주자 '노부스

바리톤 김재일 10일·노부스 콰르텟 17일 금호아트홀 공연

손열음 22일 광주시향 협연·임동혁 24일 여수서 펜 만나

콰르텟'도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제14번 '죽음과 소녀'를 비롯해 브리튼의 '세 개의 디베르티멘토', 그리고 '현악사중주 제1번'을 들려준다.

2007년 결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을 비롯해 창단 멤버인 첼리스트 문용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2009년 합류한 비올리스트 이승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독일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



김재일



임동혁

활발히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일반 4만원, 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오는 22일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갖는다. 이 현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서 손 씨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작품 54'를 협연한다. 2011년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와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등을 수상한 손씨는 많

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티스트다. 또 이날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24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술마루에서 지역 팬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전국 투어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내년 1월 23일 열리는 서울 예술의전당(2500석) 공연은 이미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7년만에 쇼팽의 '전주곡' 앨범을 발매한 임씨는 오래전부터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꼽혔던 아티스트다. 이번 공연은 '전주곡 24곡'과 함께 '베토벤', '발라드 1번', '화려한 전주곡' 등 쇼팽의 곡만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임씨는 2001년 프랑스 퐁티보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것을 비롯해 2003~2007년 세계 3대 콩쿠르(차이코프스키·쇼팽·퀸 엘리자베스)에서 모두 입상한 스타 피아니스트다. 티켓 가격 7만원~5만원. 문의 061-808-7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상살이 고단함 딛고 희망 노래하다

박철영 시집

'월선리의 달' 출간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녹록함을 형상화한 박철영 시인의 시집 '월선리의 달'(문학들이)이 출간됐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반성하고, 한탄한다. 그러나 세상살이의 곁보다는 속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깊고 예리하다. 그 가운데서 시작 화자는 끝내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을 노래한다.

"세상사를 말할 때는 / 곁만 보고 말하지 마라 / 홀로 꽃 피우고 맺힌 / 호수 / 세상이 일지라도 /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 숨 터트려 막힌 삼복더위와 / 처서 넘은 입동까지도 / 지질 출몰했을 저 불같은 성정" ('높은 호박' 중에서)



시인은 높은 호박을 보면서 곁만 보지 말고 여름날의 삼복더위를 이겨낸 시간을 기억 하라고 나지막이 속삭인다. 누구의

삶이든 저마다 뜨거운 해를 꺼안으며 허투루 살지 않은 것이기에 비루하고 초라할지라도 합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편 박 시인은 2002년 '현대시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비오는 날이면 빗방울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 등을 펴냈다. '숲속 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때 묻지 않은 동심의 공간 노래

심홍섭 동시집

'놀이터의 아이들' 출간

심홍섭 시인의 동시집 '놀이터의 아이들'(시와사람)이 출간됐다.

이번 동시집에서 시인은 탐욕의 세상에 물든 어른들의 세상을 순진무구한 눈으로 바라본다. 유년의 기억을 토대로 하는 그의 동시는 때 묻지 않은 동심의 공간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시인은 동심을 반추함으로써 세상살이에 물든 자아를 정화한다.

또한 시인은 동물과 자연에 생명성을 부여하는 시작활동을 펼친다. 강아지를 소재로 한 '우리 가족'에는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 시인의 태도가



드러난다. "호적에는 안 올랐지만 / 틀림없는 우리 가족이다"에서 보듯 시인의 상상력은 자연의 생명력을 근간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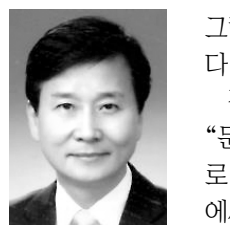
다. 광주 출신 심 시인은 1994년 '크리스천문학'과 2000년 '아동문학'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한국 아동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빠아픈 참화', '유년의 트라', '아름다운 땅'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장에 김휘씨 임용

광주문화재단은 7일 김휘(58·사진) 전 광주MBC 편성제작국장을 전통문화관장에 임용했다.

김휘 관장은 1987년 광주MBC 편성제작국 PD로 입사해 TV제작부장, 부국장, 편성제작부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방송공로추서연합회 광주전남지부 회장을 역임했다.

기획특집 '도읍 특강, 역사를 말한다', 다큐 '아, 소록도', '문화재 보존 법고창신의 꿈', '광복 60주년 특별기획 리영희 3부작' 등 주요 프로그램



를 제작했다. 김휘 관장은 "문화재단 개관으로 문화·관광차원에서 무등산의 중심축에 있는 전통문화관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참신한 공연프로그램과 새 콘텐츠로 전통문화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인도” 위작 시인·사과 않으면 수사 의뢰·소송”

천경자 화백 유족들

국립현대미술관에 통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씨, 사위인 문법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보문을 통해 이들은 “속속 밝혀지는 증거에 의해 소위 '감정', 이른바 '과학적 수사' 결과라는 것이 미술관측과 화랑협

회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가 위작이었음을 시인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진품으로 만들려 했던 과오와 그로 인해 고인과 유족에게 끼친 심적 고통

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천 화백의 작품임을 명기하지 않고 오기된 자료는 폐기 및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통보문은 “21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와 저작권 위반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며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작의 포스터를 제작해 취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등 제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p>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7층) 건물 (사우나 건물)</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 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 용 6억)</p> <p>매가 16억</p> <p>010-6834-4800</p>	<p>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4층) 신축원룸</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4면 올 대리석 시공 신축 원룸 / 내부 개조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매가 6억 8천만</p> <p>010-6832-97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 (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p> <p>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역 (용4천)(보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p> <p>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p> <p>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을수리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p> <p>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 월32만) → 매가 3천8백만</p> <p>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p> <p>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5백만</p> <p>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 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 월520만) → 매가 6억8천만</p> <p>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 월1,020만) → 매가 16억</p> <p>010-6832-9700</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 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 주택및사무실) 삼성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8천만</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 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최저가 11억8천만</p> <p>3. 북구 두암동 (토 44평, 건 166평) ※ 두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1층(상가)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만</p> <p>4. 서구 마북동 (토 342평, 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 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만</p> <p>※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p> <p>010-7384-7800 / 010-6670-9800</p>	<p>경매교육</p>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